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재개발 부문 대통령 표창 영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1월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3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혁신상 인재개발 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공단은 국가 인적자원 개발·평가·활용 지원 중심기관으로서 구성원의 전문성과 직무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전 국민의 능력 개발 등 일자리 사업의 품질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혁신한 공을 인정받았다.

국가품질혁신상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다. 인재개발 부문 등 총 9개 부문으로 구성되고, 부문별로 혁신활동에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이 수상 대상이다.

공단은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역량증진이 우선해야 한다는 경영 기조에 따라 인재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를 2014년 대비 2016년에 두 배 이상 늘렸다.

사내 전문 학위과정과 직급·직렬별 위탁교육 등 다양한 직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 사업의 전문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힘입어 2016년도 정부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2015년 대비 4.4점 향상되어 A등급을 달성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주훈련비 미환급금 찾아주기 토탈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조직의 혁신역량도 강화했다.

2013년부터는 스펙초월채용 제도를 도입해 인재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346명의 우수 인재를 뽑아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여성·지역

인재 등 사회적 약자 채용도 확대해 우리 사회의 고용노동 패러다임이 스펙 중심에서 실력 중심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했다.

공단은 실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170만 사업장과 1천100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능력개발사업 외에 대·중소기업 상생 기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국가자격시험, 청년 해외취업 등 다양한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산업4.0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가상훈련시스템 등 50여 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했다.

올해도 스마트자동차 등 미래유망직무의 NCS를 신규 개발하고 있다.

로봇,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생명공학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고 융복합 분야의 창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인문계 특화과정으로 전환하는 등 고급훈련 과정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내부직원의 역량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 직업훈련 참여율 향상과 국민의 일자리 문제 해결지원 등이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에 기반을 둔 고객중심경영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순환 이사장 직무대행은 "국가품질혁신상 대통령 표창 수상을 계기로 구성원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 고객서비스의 지속적인 품질혁신을 이루고 국민, 사업파트너 등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